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10일 일본 스즈카 서킷에서 열린 일본 그랑프리자동차대회에서 참가 자동차들이 질주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브라질의 필리페 마사와 이탈리아의 비딴또니오 리우찌의 F1머신이 충돌, 트랙 밖으로 밀려났다. /연합뉴스

독 베텔 시즌 3승

F1그랑프리 일본대회

세바스티안 베텔(독일·레드불)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일본대회에서 우승했다.

베텔은 10일 일본 스즈카 서킷에서 열린 2010시즌 16라운드 경기에서 5.807㎞의 서킷 53바퀴를 1시간30분27초323에 돌아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지난해 일본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던 베텔은 206점의 랭킹 포인트를 얻어 220점을 획득한 팀 동료 마크 웨버(호주·레드불), 206점의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6월 스페인 대회에서 우승했던 베텔은 시즌 3승째를 거뒀다. 웨버가 0.905초 뒤진 2위로 들어왔고 알론소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즌 3개 대회가 남은 가운데 1위와 공동 2위의 격차가 14점에 불과해 아직 시즌 챔피언이 누가 될지는 점치기 어렵다. 팀 순위에서는 레드불이 426점으로 맥라렌-메르세데스의 381점을 앞서 있다.

다음 대회는 24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다.

/일본 스즈카=장필수기자 bungy@

전남 사이클 나아름 대회 4관왕

광주체고 김지연 배영 50m 대회 新 금 물살

전남 박주영·김민 마라톤 일반·대학부 석권

2010 경상남도

제 91회 전국체전

전남의 박주영(한국전력·사진)과 김민(건국대)이 제 91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와 남대부 마라톤에서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사이클의 나아름(나주시청)은 대회 4관왕에 올랐다.

10일 전남 김민이 남대부 하프마라톤에서 1분05초13로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대회 1만m에도 출전 신청을 했던 김민은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 하프마라톤에만 출전하며 금메달 프로젝트에 성공했다.

앞선 9일 열린 남자 일반부 마라톤 경기에서는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 박주영(한국전력)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 전남이 대한민국 마라톤 중흥의 주역임을 입증했다.

마라톤을 제패한 두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가 제공하는 후원금 500만원씩을 받았다.

전남대표 한다례(한국체대)도 육상 여대부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사이클의 나아름(나주시청)은 개인도로에서 다시 한 번 금빛 페달을 밟으며 4관왕에 등극했다. 체조 허선미(제주 남녕고)에 이은 이번 대회 두 번째 4관왕이다.

수영에서도 승전보가 이어졌다.

남자 일반부 유정남(전남수영연맹)은 접영 200m에 이어 10일 열린 배영50m 결승에서 1위를 기록해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대표 정다래(전남수영연맹)도 평영 100m와 200m를 제패했다. 광주체고의 김지현은 여고부 배영 50m에서 29초48로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우슈의 장용호는 9일 태극권 전능에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단체종목의 선전으로 막바지 금메달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시즌 3연패에 도전하는 광주일고 야구부가 경기 야탑고를 5-4로 누르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정구의 강자 동신고·여고는 준결승에서 각각 전남과 경남 대표를 제압하고 은메달 두 개를 확보했다. 호남대도 대학부 축구 준결승에서 전주대를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노리게 됐다.

동향 라이벌 금호고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던 광양제철고는 경북에 2-1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합류했다.

/진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人의 광주시청 육상팀

금 3·동 1 '무서운 질주'

'작은 거인' 광주시청 육상팀의 무서운 질주가 이어졌다.

광주시청 육상팀이 10일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400m 계주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 경기도를 0.09초 차로 따돌리며 이번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9개의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최근 공격적인 선수영입으로 육상 골리앗으로 떠오른 팀이다. 그래서 13명으로 이뤄진 단일팀 광주시청의 선전은 더욱 빛이 났다.

광주시청팀을 이끌고 있는 심재용 감독의 작전도 적중했다. 심 감독은 100m에서 동메달을 딴 임희남을 마지막 자리 대신 두 번째 주자로 배치했다.

110m 허들 금메달리스트 박태경으로 스타트를 끊은 광주시청팀은 임희남으로 초반 기선 싸움을 건 끝에 극적인 승리를 연출했다.

앞선 8일에는 한국육상의 자존심 박태경·김덕현이 금메달 두 개를 신고했었다. 남자허들 110m에 출전한 박태경은 예선과 결선에서 13.80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필드에서는 김덕현이 멀리뛰기에서 7m75를 기록하며 전국체전 우승 기록을 6연패로 늘렸다.

31년간 변동이 없는 남자육상 100m 한국기록 10초34를 놓고 벌어진 별들의 승부에서는 광주시청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 임희남이 여호수와(인천시청), 전덕형(경찰대학), 김국영(안양시청)과의 대결에서 10.54를 기록하며 여호수와 전덕형에 이어 김국영과 공동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00m 결승에 진출했던 박평환은 입상권에는 실패했지만 10.67로 자신의 최고기록을 세우며 상승세다. 마라톤에서는 남자 일반부 김수길(11위), 여자 일반부 정복순(8위)·이미옥(15위)이 선전하며 광주시 선수단의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격 코치가 국가대표 제쳤다

담양군청 남산호씨 깜짝 우승

사격 국가대표팀의 남산호(47·담양군청) 코치가 '깜짝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전남을 대표해 체전에 참가한 남산호 선수는 사격 대표팀에서 트레이너로 선수들의 훈련 전반을 담당하는 코치이기도 하다.

지난 8일 창원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50m 소총 복사 본선에서 597점을 기록했던 남코치는 결선에서 102.4점을 보태 합계 699.4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자들인 현역 대표 선수들을 누르고 차지한 '깜짝 우승'이었다.

올해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3개 종목에서 1위에 오른 김종현(창원시청)은 남 코치와의 대결에서 699.2점을 기록해 2위에 올랐고, 세계선수권대회 소총 3자세 은메달리스트 한진섭(충남체육회)이 698.3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제일은행 사격단에서 활동했던 남 코치는 1995년 팀의 해체로 총을 놓았지만 직장인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 담양군청 소속으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선 전국체전에서 순위권과 거리가 멀었던 남 코치는 "다른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기분은 좋지만 현역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해 미안하다"며 "체력훈련을 같이 하면서 실력이 좋아진 것 같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